

## 중국 거주 가족의 귀국 후 재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청소년 자녀 어머니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 미 영

최 연 실<sup>†</sup>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 어머니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국 거주 가족의 귀국 후 재적응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중국 상하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한국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청소년 자녀를 둔 귀국 가족 내 어머니 3명이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중국에서의 거주와 귀국 후 재적응 과정의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해외 거주지에서 가족응집력이 강화되는 경험을 하였고, 귀국 후 자녀교육 경험을 통해 한국 교육에 대한 혼란과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으며, 더 나은 교육과 최선의 어머니 역할을 고민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그들이 해외 거주지에서 강화시킨 가족응집력은 귀국 후 재적응의 긍정적인 자원이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귀국 가족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여성상담 및 가족상담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중국 거주 귀국 가족, 귀국 후 재적응, 청소년 자녀, 어머니 역할, 내러티브 탐구

\* 본 논문은 제1 저자의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최연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2287-5317, E-mail: yschoi@smu.ac.kr

## 서론

세계화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인의 장기적인 해외 거주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을 '교포', '동포'와 '교민'으로 구별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일이 잦다. 법적으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중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을 지칭한다. 2019년 10월 외교부에서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750만 명으로 2014년 720만 명, 2016년 740만 명에 견주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에 대한 통계는 그 수가 적어 정확한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재외한국인에 관한 명칭의 불명확한 사용과 실질적 자료 및 통계의 부족은 재외한국인의 특성과 타국과 모국에서의 경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정진경, 양계민, 2004).

해외 거주는 이질적인 문화와의 만남을 가져온다. 문화접촉의 상황에서 적응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적응(acclimation)'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문화충격(culture shock)'은 새로운 문화 환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존의 문화적 관습과 틀이 적용되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반응이다(Oberg, 1960; 김영인에서재인용, 2018). Oberg(1960)의 문화충격 이론에서는 타문화에 체류하면서 경

험하는 정서적 반응이 밀월-위기-회복-적응의 단계를 거치며, U-곡선(U-curve)을 따른다고 보았다.

문화충격은 해외 거주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후 자신의 모국에 돌아와서도 경험하게 된다. Lysgaard(1995; 이노미에서재인용, 2017)는 타문화와의 적응을 넘어 모국으로 돌아와서 재적응하는 과정에서도 U-곡선의 단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보고, 그 단계를 행복-문화충격-조정-소외-통합의 5단계인 W모형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W모형은 이주자가 귀국 후 경험하게 되는 역문화충격(re-entry culture shock)에 관한 모형이다. 그 모형에서는 이주자가 모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국의 환경과 문화에 충격을 받는 시기를 거쳐 통합의 과정을 경험하며, 그 적응의 과정은 개인차가 존재하나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1년 이상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타문화 적응 후 다시 모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심각한 재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Adler, 1981; Gaw, 2000; Martin, 1984; Chamove & Soeterik, 2006; Storti, 2003; 강란혜, 2001; 김미경, 2012; 고명금, 2018; 김영인, 2018;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이노미, 2017). 그러나 국내의 기존 연구는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귀국 자녀의 학업과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강미진, 2014; 강예지, 김미현, 2017; 김선주, 2013; 김향미, 김혜정, 이양연, 이혜주, 2018; 윤종일, 2016; 정재욱, 주은선, 2003)와 심리적 적응 및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강란혜, 2001; 고유미, 2006; 김혜정, 남초원, 이수경, 2015; 안수진, 2012;

이현주, 2009)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 문화적응과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고명금, 2018; 김민, 2015; 김철리, 2015; 김영인, 2018;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이수경, 2014)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박애스더, 2018). 귀국 이후 재적응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모국으로 돌아온 뒤에 갖게 되는 역문화충격에 관한 이해를 확대했으나, 연구대상이 유아, 아동, 청소년, 대학생 등이기에 연구의 주제가 학업과 진학이라는 협소한 주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귀국 가족의 경험을 폭넓게 조망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미국대학을 졸업한 조기유학 종결자들의 가족관계 경험(임다솜, 2018),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요인(장예은, 김향미, 김혜정, 2019; 정재욱, 주은선, 2003; 좌동훈, 2013)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주로 자녀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므로, 귀국 가족 내 다른 가족원의 경험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국가족의 귀국 후 재적응에 대한 다른 가족원의 경험으로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특히 귀국 후 재적응 과정에서 어머니 역할을 이해하고자 연구참여자를 청소년 자녀를 둔 귀국 가족의 어머니로 설정하였다.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어머니를 선정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부모 역할을 볼 때, 재적응과정에서 중요한 교육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담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성역할적인 구별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귀국 가족의 어머니는 귀국 후 재적응 과

정에서 자신의 적응 외에 자녀의 귀국 후 재적응을 도와야 하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귀국 가족에서 어머니들은 아내로서의 정체성보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시하고(조혜자, 방희정, 2006), 자녀 양육의 책임과 역할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자녀와 가족관계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김의철, 박연신, 2006)이 되기에 귀국 후 가족의 재적응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귀국 후 재적응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발달과제로 갖는 청소년기 자녀와 자아정체감의 위기, 사회심리적 갈등, 신체적 쇠퇴 등을 경험하는 중년기(김명자, 1991) 부모로 구성된다. 가족생활주기 중 자녀 교육기 가족은 자녀 교육과 노부모 부양의 의무를 지게 되면서 위아래 세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다. 이때 중년기 부부는 자녀의 학업 성적 부진이나 대학 입학 준비, 사춘기 자녀 양육 문제와 의견 충돌, 자녀들의 집 밖의 활동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녀 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출의 증가를 경험한다(최연실, 옥선화, 1997). 자녀교육기의 귀국 가족은 동시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녀교육기의 발달과업 외에 가족구성원이 저마다의 역할과 지위 속에서 재적응의 과업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어머니와의 관계는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최정아, 2014), 학교생활과 적응(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학업 성취(박성미, 전미경, 2013) 및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요인(김청송, 2009)이다. 또한, 자녀의 발달 지원을 돕는 교육 관여는 부모와의 유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다(Scher et al., 2006). 또한 청소년

년기는 인생 전반에서 익혀야 할 태도와 가치를 학습할 시기로 성인기의 가치관과 태도 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육행동이 된다(Tam & Chan, 2009). 그러므로 귀국 후 재적응 경험 속에서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관계 및 자녀의 학교적응과 교육을 돕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체류지가 주로 영미(英美) 문화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박예스터, 2018). 2019년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재외동포 750만 명은 193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거주가 많은 상위 10개 나라 중 영미(英美) 문화권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뿐이며, 나머지 7개 국가는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이중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수는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중국 재외국민은 30만8,000여 명으로 이들 중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인 일반 체류자가 24만6,618명으로 중국 재외국민의 80%를 차지한다. 이는 영주권자의 비율이 높은 일본과 영주권자와 일반 체류자의 비율이 비슷한 미국과는 다른 특징이다. 아시아 국가에서 재외국민 비율로 따지면 일본이 중국보다 앞서나 일본은 영주권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귀국 후 재적응을 살펴보기에는 중국 거주 가족의 귀국 경험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여러 도시 중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경제 도시로 그동안 한국과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자동차, 식품, 전자, 유통, 문화 등의 산업을 이끄는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지

법인이 다수 설립되었으며, 한국 교민 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외국인 취업 허가제도 강화,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한국 재외국민의 귀국과 동남아 등지로의 이전이 나타나면서, 중국 재외교포 수는 2016년 말 대비 8만6,640명(3.4%)이 감소하였다. 2016년 한반도 사드(THAAD·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한·중 외교 관계가 시련을 맞이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은 상하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하였다.<sup>1)</sup> 이로 인해 다수의 상하이 현지 주재원들이 한국으로 귀임하였고, 주재원 가족들의 귀국도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위험 수준 중 가장 높은 6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세계적 코로나 범유행(pandemic)을 선언한 뒤 상하이에서의 가족단위 귀국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체류지를 중국 상하이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귀국 후 가족의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삶을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삶을 다시 살아내는 과정이다(Clandinin, 2006/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가 적합한 이유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그러한 경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 상하이 거주

1) 중국 사드 보복 버티기 한계, 한국 기업들 속속 철수 (2017. 9월).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110433858097>에서 인출.

귀국 가족이 중국 거주에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경험한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귀국 가족 어머니들의 경험을 해체, 재구성함으로써 그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귀국 가족의 귀국 후 재적응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상하이 거주 가족의 경험을 배경적으로 먼저 파악한 후 이들의 귀국 후 재적응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중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요인들이 귀국 후 재적응에 힘이 되었으며, 적응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적응의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의 경험은 가족체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귀국 후 가족구성원들은 삶의 모습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청소년 자녀를 둔 귀국 가족 어머니들의 역할 경험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 거주 귀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중국에서 어떠한 역할 경험을 하였는가?

**연구문제 2:** 중국 거주 귀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귀국 후 재적응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 경험을 하였는가?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문화적응 및 역문화충격

문화적응이란 문화가 다른 두 사회집단에

비교적 장시간 접촉한 결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 집단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Berry, 1991: 고명금에서 재인용, 2018). 문화충격은 새로운 문화 환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존의 문화적 관습과 틀이 적용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반응(Oberg, 1960: 이노미에서 재인용, 2017)이라면, 역문화충격은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새로운 문화에 진입할 때와 같은 문화충격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Jandt, 2007; Uehara, 1983: 이노미에서 재인용, 2017). 일반적으로 외국 생활을 시작할 때는 처음 접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일 것이라 예상하고 적응을 위해 준비하지만, 모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자신이 살던 문화 속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적응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국 문화로의 재진입은 외국 문화로의 이동보다 더 어려운 전환(Ader, 1981)이며, 역문화충격을 경험한 귀국자들은 개인적 적응과 수줍음 문제(Gaw, 2000) 및 심리적 적응, 웰빙, 슬픔 등 재적응의 문제(Chamove & Soeterik, 2006)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귀국 후의 적응이 타국에서의 적응보다 더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Marsh(1975: 이노미에서 재인용, 2017)는 역문화충격을 6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6부분은 문화적 적응(정체성,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일들), 사회적 적응(사회적 소외감, 갈등), 언어적 적응(미숙한 언어 사용, 언어습관의 오류, 해석적 오류), 정치적 적응(정책적 변화, 정치적 상황과 견해의 변화), 교육적 적응(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과 같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직업적 적응(새로운 업무, 업무소통, 업무에 대한 주변의 기대감, 직업 환경)

이다. 이를 통해 귀국 후 재적응이 삶의 전반적 영역에 걸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Oberg(1960: 김영인에서 재인용, 2018)의 문화충격 이론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밀월-위기-회복-적응의 정서적 단계를 거치며, 그 변화 모양이 'U'의 형태를 띤다고 보았다. 한편, Lysgaard(1995: 이노미에서 재인용, 2017)는 해외 체류자가 귀국하여 모국에 적응할 때, 문화충격과 유사한 과정을 반복하여 경험하는 의미에서 U자 형태가 반복되는 형태인 'W' 모양을 띤다는 W모형을 제시하였다. W모형은 재적응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행복(honeymoon)-문화충격(culture shock)-조정(initial adjustment)-소외(mental isolation)-통합(acceptance & integration)의 5단계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희망과 기대,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잘 지내지만 다소 불만족감을 경험하고 혼란과 자기 회의감, 불편감을 경험하며, 기대와는 다른 환경과 문화에 충격을 받는 시기가 찾아온다. 이 시기를 지나 자신의 기대를 조절하고 인식과 적응을 통해 조정하는 시기를 거친 뒤에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를 마주하면서 소외의 단계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조정하고, 의미를 탐색하며, 여러 차원에서의 비교를 통해 역문화충격이 줄어들고, 모국 문화에 적응하는 재적응과 재조정의 통합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런 역문화충격의 과정은 개인차가 존재하나,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1년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역문화충격의 W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 외에 귀국 후 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귀국이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 예정된 귀국이었는지 예상하지 못한 귀국이었는지, 나이, 예전의 귀국 경험, 해외문화와의 상호작용 정도, 귀국 후의 환경, 해외 체류 시 모국과의 상호작용 정도, 해외문화와 자국 문화와의 차이가 있다(Storti, 2003).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국 체류 기간이 길수록 귀국 후 재적응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외국 체류 시 만족도가 높으면 귀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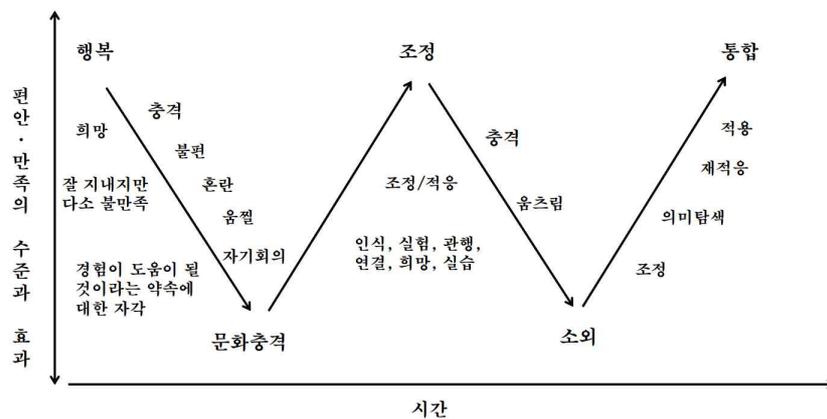


그림 1. 역문화충격의 W모형

출처: Hoffenburger, K., Mosier, R., & Stokes, B. 1999(이노미에서 재인용, 2017)

도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강란혜, 2001). 또한, 귀국 성인 대다수가 역문화충격과 재적응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며(이승민, 2012), 해외 거주 후 국내 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보다 외로움을 더 느끼고(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불충분한 귀국 준비와 모국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은 귀국 후 재적응을 저해한다(김미경, 2012).

본 연구는 문화적응 및 귀국 후 재적응 과정은 개인차,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존재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적응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W모형을 바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 귀국 후 재적응 과정에서의 청소년 자녀 어머니의 역할

본 연구는 귀국 후 재적응 과정에서 귀국 가족 어머니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로, 귀국 후 재적응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특성을 자녀의 교육적 적응을 돕는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정서발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진로, 또래 관계, 학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머니의 역할과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중년기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발달과 이에 따르는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체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다양한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김청송(2009)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족 변인이고,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의 과잉간섭과 애정을 무관심이나 방치의 반대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은 청소년 자녀의 행복감을 증진한다고 하였다.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설명과 감독 등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어머니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최정아, 2014). 나아가 청소년 자녀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감과 애착이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성미, 전미경, 2013).

귀국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귀국 가족 재적응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귀국 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는 국내 교육 현실의 특성상 조기유학 후 귀국한 학생의 수가 많기 때문에(교육통계연보, 2017), 귀국 후 학교생활의 적응 정도, 자아정체감의 차이,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애스터, 2018).

귀국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그들의 학교적응과 같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주로 다루어왔다. 초기 연구는 한국어나 학업 측면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연구의 내용이 적응의 효율성을 강조한 연구이기에 한국적 가치의 내재 정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있고, 적응의 개념 적용이 연구자나 교사 중심으로 일방적이며 표면적인 부분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권효숙, 2002).

일반적으로 귀국 가족 자녀가 접하는 가장 큰 변화는 학교생활이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학업과 관련된 부

분이다. 학업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언어상의 문제로 귀국 가족의 자녀들은 서툰 한국어로 교우 관계를 맺거나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정확한 발음으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권선미, 1997). 귀국 가족의 자녀는 일상적인 대화나 생활에서는 언어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언어 문제로 인해 여러 과목에서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귀국 가족의 자녀들에게 한국학교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정재욱, 2002; 주도연, 2011). 점수로 일원화하는 한국식 성적 평가방식은 외국에서 공부한 자녀뿐만 아니라 귀국 가족의 부모들도 느끼는 어려움으로 부모는 자녀를 압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김영인, 2018). 귀국 학생들은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여 귀국 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해외 거주국보다 한국의 교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 위주의 교육내용과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강조되는 한국의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연관이 있다(윤종일, 2016).

학교에서 학업과 관련된 부분 외에 또래 문화적응에 대한 부분도 귀국 가족의 자녀들이 느끼는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여학생의 화장이나 남학생들의 거친 말투는 귀국 학생들에게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오고(이수경 등, 2018),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형성된 배타적인 학생집단은 귀국 청소년들이 한국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고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다(문경숙, 임재훈,

2012).

귀국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귀국 가족의 자녀들이 학업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한국 학생들이 미리 선행 학습을 하는 관행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귀국 가족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런 어려움을 과외나 학원 같은 사교육의 도움으로 해결하며(정재욱, 주은선, 2003), 자녀의 한국학교 적응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해외 거주 당시 필요한 학습을 미리 준비시키기도 하고, 한국에 온 이후에도 자녀들의 학교 안팎 생활을 면밀하게 지도한다.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는 부모역할은 귀국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갖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부모의 보호 감독 능력이 학생의 적응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귀국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한국 생활 적응에 성패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문경숙 등, 2009). 귀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 열등감, 불안, 우울 등에서 희생적인 부모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문경숙, 이현숙, 2010)가 있다. 귀국 가족의 부모는 귀국 후 다양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의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강예지, 김미현, 2017), 한국 문화가 경쟁적인 문화임을 고려하여 자녀가 경쟁 사회에 잘 적응하고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처신해 나가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부모로서 중요한 책임으로 여긴다고 하였다(김민정, 2014).

연구자나 한국학교 측이 규정한 적응이라는 잣대로 귀국 학생을 규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귀국 학생을 주체적으로 바라본 연

구는 200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 귀국 학생에 'TCK(Third Culture Kids)'라는 개념이 사용되면서 귀국 자녀들의 정체성과 귀국 후 재적응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되었다. TCK는 제1문화인 부모·가정의 문화(모국의 문화)나 제2문화인 체류 국가의 문화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 즉 제3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Pollock & Reken, 2009; 김영인에서재인용, 2018).

귀국 청소년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였기 때문에 독특한 정체성의 발달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청소년은 아동기에 학습한 문화적 규칙들을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시험해 보면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귀국 청소년들은 기존의 규칙들을 시험해 보지 못한 채 새로운 규칙을 체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김영인, 2018).

귀국 청소년이 느끼는 문화적 소속감의 결여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연결된다(남지은, 2013). 귀국 청소년들은 귀국 후 재적응을 위해 해외에서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낼 것을 요구받으며,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지만 혼자서 견디거나 쌓아두고 마음을 삭이는 등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이영성, 이동훈, 2009).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청소년기의 귀국 자녀들은 부모가 문화적 완충지대를 만들어 주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여전히 부모가 가진 사회·경제적·문화적 자본이 자녀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문경숙, 임재훈,

윤철경, 이아영, 2009). 또한, 정체감 혼란과 체류국에서의 이별에 대한 상실감으로 관계형성에 소극적이고 표면화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귀국 청소년의 귀국 후 재적응의 어려움에 대해 좋은 대상 관계 경험이 안정감을 주어 적응에 도움이 되고(고명금, 2018), 이 중 학교적응에 있어서 부모, 특히 어머니가 가장 큰 사회적 지지 자원이었다는 연구(김선주, 2013) 등이 있다.

그러나 문화적 소외감의 결여가 반드시 귀국 후 부적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정체성은 개인과 문화집단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의 특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개인의 융통성이나 성격, 독립성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때 어떤 태도와 방식을 취할지 결정하게 해준다(임양희, 2014). 문화정체성은 고국의 문화 환경만 경험했을 때는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해외 거주 경험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를 접할 때 개인의 문화정체성을 알 수 있게 된다. 문화정체성은 역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때보다는 귀국 후에 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더 쉽다(Sussman, 2000). 이처럼, 귀국 가족은 해외 거주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타자로서 자문화의 고유성을 성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얻게 된다. 귀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상황에 대한 통제성, 긍정성, 자율성을 개발한다면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지게 되고, 이는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다(김혜정, 남초원, 이수정, 2015).

따라서 귀국 가족의 적응을 위해 부모의 역할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으며(김혜나, 한유진, 강진욱, 2018), 다양한 국가에서 귀국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적응

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개별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 MacIntyre(1981)는 내러티브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 속에서 내러티브를 살아내며, 자신이 살아내는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삶을 이해할 수 있기에 내러티브는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였다(홍영숙에서 재인용, 2015). Clandinin(2006/2015)은 내러티브 탐구란 사람들이 '살아가기(living)', 그들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기(telling)', 그리고 살아내고 말했던 이야기에 관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탐구하는 '다시 말하기(retelling)'로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마지막 단계인 '다시 살기(reliving)'를 통해 살아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는 새롭게 살아내는 이야기(stories to live by)가 되고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어 개별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이야기로 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Dewey의 경험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Dewey(1976)는 경험을 '인간의 사고와 사회적, 인간적, 물질적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변화하는 흐름'(Clandinin & Rosiek, 2007; 홍영숙에서 재인용, 2015)으로 바라보았으며, Dewey가 제시한 경험의 속성은 Clandinin과 Connelly(2000/2007)

가 제시한 3차원적 탐구 공간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틀의 기초가 되었다. 3차원적 탐구 공간은 시간성(계속성), 사회성(상호작용), 장소(상황)로 이 3가지 속성들의 상호작용이 구성하는 경험의 이야기가 내러티브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도구로서 활용할 때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되며, 내러티브 탐구과정 중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고(이정표, 2012), 서로 다른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만나 대화하면서 타자를 통해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아 속에 내재된 타자성을 성찰적으로 반성하게 하는(박민정, 2006) 존재론적 의미를 내포한다.

본 연구는 귀국 후 가족의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하였다. 변화에 대한 적응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단편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다양한 여러 요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적응은 개인의 내면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에 한 개인의 주관성과 경험의 복잡한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심리적 과정을 반영하기에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해가는 내러티브 탐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 연구 절차

본 연구는 Clandinin과 Connelly(2000/2007)가 제시한 5단계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을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5단계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은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 작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중간 연구

텍스트에서 최종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로 나눈다.

첫 번째 ‘현장으로 들어가기’는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탐색하고 연구 목적에 맞는 현장을 찾아 자료수집에 앞서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본 연구자는 해외 거주와 귀국 후 재적응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내러티브를 작성하여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주제를 고려하여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만들어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는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현장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의 세 번째 과정은 ‘현장 텍스트 작성하기’이다. 본 연구의 현장 텍스트는 면담 내용의 녹음과 전사(轉寫), 면담 시 연구참여자의 말, 표정, 동작 등을 적어 놓은 연구자의 현장 연구 노트이다.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맞는 자료를 선정하고 시간성, 사회성, 장소를 고려하여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와 문자, 추가 인터뷰, 이메일을 등을 통해 다시 이해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를 정교화하였다.

네 번째인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연구 텍스트로’의 과정은 경험에 대한 의미구성 단계로 Clandinin과 Connelly(2000/2007)는 이 과정에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연구의 의미와

중요성,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 읽는 이로 하여금 공명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연구 문제들을 반복하여 질문해보면서, 연구의 개인적, 실천적, 이론적 맥락과 연구결과와 의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험의 시간성, 상황성을 연상하면서 주제별로 묶어 플롯 라인을 만들어 전문가 3인의 검증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단계는 ‘다시 이야기하기’의 과정이다. 인간은 경험적인 존재이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인간의 경험이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원이 된다(김필성, 2015). 본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이기에 연구 텍스트를 참여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여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반복된 피드백을 통한 수정작업을 거친 후 연구 텍스트를 완성하였다.

### 연구자의 내러티브

본 연구자도 귀국 후 재적응의 경험이 있다. 2006년 12월에 중국에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과 함께 상하이로 출국하였다. 상하이에서 지낸 시간은 외국 문화에 대한 적응과 교민사회 속에서 살아가기로 정의할 수 있다. 외국 생활이기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불편함은 어렵지 않게 감수할 수 있었다. 작은 교민사회 속에서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많았고 친구를 사귀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맞는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았다. 비행기로 2시간이면 한국에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아 한국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없었기에 한국과 심리적인 거리가 생겼다. 친정과 시댁에서 외국에 나가 산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을 배려해주었기에 우리 식구만 신경 쓰면 되는 생활이었다. 단조롭고 단순하지만 생활 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중국 거주 이후 귀국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자는 나름대로 귀국 준비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나, 귀국 후 생활은 당황스러움과 낮섬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야 하는 외국인인 것 같았다. 30년 넘게 살았던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어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의 표정도 경계하며 굳어있어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제가 중국에서 살다 와서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하고 물어보면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상대방도 당황하거나 깔보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다. 어느 모임에서나 분위기를 익히기 어려워 곁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친정 식구와 친척들은 모두 반갑고 따뜻했지만, 다시 적응해야 하는 관계였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도 했다. “이상해, 왜 그러지? 정말 이상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한국 사회와 문화를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나 주변 지인들과 변화된 생각을 공유할 수는 없었다.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 까다롭게 너무 따지지 말라’는 반응이 많았기에 관계에서 위축되는 때도 있었다.

본 연구의 시작은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8년의 중국 생활과 귀국 후 6년의 세월은 본 연구자의 일부가 되었으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되기에 과연 다른 사람들은 귀국 후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궁금했다. 그 당시에는 약간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귀국 후 재적응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으며, 귀국 후 사람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경험을 통해 해외 거주지와 그곳에서 함께 지낸 가족구성원의 위치나 성별에 따라 귀국 후 재적응의 경험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왔다. 그래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본 연구자 같은 사람, 어머니이며 아내인 한 개인을 통해 중국 거주 후 한국에 돌아온 가족의 생활은 어떠한지, 그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관심에서 ‘연구질문(research puzzle)’ (Clandinin & Connelly, 2000/2007)이 시작되었다.

#### 연구참여자 조건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해외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서울시교육청(2020)은 특례편입학 대상자를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학생으로 칭하였기에, 귀국 후 재적응 과정에서 어머니의 부모역할 경험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거주 기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귀국 후 재적응은 6개월 이상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적응의 기간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참여자의 귀국 후 한국 거주 기간은 3년 미만으로 정하였다. 귀국 가족의 자녀는 귀국 시와 현

재 청소년기에 있으며, 연구참여자는 연구주제와 목적에 동의한 자이다.

참고하여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3명으로 선정하였다.

### 연구참여자 모집

연구참여자 모집은 연구자 주변의 동료, 가족, 친구와 지인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선정 조건에 맞는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 상하이 영국국제학교(British International School Shanghai) 한국학생 상담사를 통해 소개받은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은 뒤,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또 다른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연구윤리에 기초하여 연구가 진행됨을 설명한 후 동의 의사를 밝힌 모집자 중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참여자는 3명 정도가 적절하다는 보고(백지연, 2014)를

###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출국과 귀국 관련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표 2와 같으며,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뒤 면담 내용을 녹화하였으며, 면담을 마친 뒤 녹화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연구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상태였기에 연구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화상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 바로 현장 텍스트로 구성하고 이 현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명	연령	자녀 수	결혼기간	최종학력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주거형태	월평균 가족수입
이영희	47세	3명	17년	대학원 졸	전문직	전문사무직	자가	500~700만 원
최하린	43세	2명	15년	대학원 졸	전문직	전문직	자가	500~700만 원
박경희	51세	2명	24년	대졸	전업주부	전문직	자가	300~500만 원

표 2. 연구참여자들의 출국과 귀국 관련 특성

성명	출국 이유	귀국 이유	귀국 시 자녀 연령	거주기간	귀국 시점
이영희	배우자의 해외 파견	해외 파견 기간 만료	15세, 12세, 6세	4년	2019년 12월
최하린	배우자의 희망 해외 파견	해외 파견 기간 만료	13세, 6세	2년	2020년 2월
박경희	배우자의 희망 해외 파견	해외 파견 기간 만료	19세 (2018년 1월 귀국), 15세	5년	2019년 1월

장 텍스트를 다음 대화나 면담에 반영하는 나선형적 절차(Spradley, 1980/2003)를 사용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별로 2~3회기로 진행하였다. 총 면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이다. 공식적인 면담이 종료된 후 면담 내용 확인 및 추가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이메일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계로 면담 자료와 현장 노트 등을 통해 수집된 현장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계속 나타나는 내러티브 패턴, 줄거리, 주제 등을 찾아내어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면담 전사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경험에 대한 의미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추려내어 함께 묶고, 그 이야기의 줄거리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주제어를 찾았다. 소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하고 각 내용 간의 연계성을 탐색한 뒤, 선행연구를 적용하여 텍스트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요약된 주제와 연구 문제에 따라 중간 텍스트를 구성한 뒤 전문가 3인의 검증을 받았다. 중간 텍스트는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복하여 피드백을 주고받은 뒤 최종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자의 출신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터넷 화상면담으로 진행하였다. 화상면담 시 면담

장소는 개인정보의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를 선택하여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연구자는 개별 심층면담에 앞서 참여자와 연구참여 설명서를 함께 읽으면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구글(Google)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녹화기록물과 녹취록은 대상자들의 이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면담 도중 이야기된 가족이나 인물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가명 처리하여 참여자들에게 텍스트를 보여주고 수정할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수정 혹은 삭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 본 연구가 참여자와 함께 진행되는 공동 연구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협력하였다.

####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의 전체 과정을 수행함에 앞서 질적 연구의 준비를 위해 석사 과정에서 연구방법론을 공부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고 질적 연구 방법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둘째, 연구 과정에서 외부 점검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시작 시, 연구 중, 연구 결과 해석 시 지도교수의 자문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해석에 대해 점검받았다. 또한 '참여자 검증(member check)(Lincoln & Guba, 1985; Seale, 2002 재인용) 과정을 거친 뒤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심리상담 관련 석사 과정을 마친 동료 1인과 상하이 영국국제학교 한국학생 상담사의 피드백을 받았다.

셋째, 연구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부터 연구 텍스트 구성까지 참여자의 확인을 거쳤다. 확인 과정에서 수정을 요청하는 부분은 참여자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 결 과

해외 거주지에서의 청소년 자녀 어머니의 역할 경험

### 이영희의 이야기

**가족 소풍.** 남편이 해외로 발령받을 당시 이영희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셋째 자녀를 임신 중이었다. 직장 업무와 육아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던 상황이라 출국을 위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영희는 중국에서의 4년이 가족 소풍 같았다고 말한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업주부의 삶은 가족 중심의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가족 안에 아버지의 자리를 찾고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남편의 태도 변화도 큰 힘이 되었다. 이영희에게 해외 거주지의 생활은 직장인, 딸, 며느리라는 역할보다 엄마, 아내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상하이 가자마자 소풍 간 기분인 거 있죠. 시댁, 친정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일로부터도 자유롭고. 우리 가족끼리 집중할 수

있는 시기였던 거 같아요. 저희가 시댁, 친정을 신경 안 써도 비난이나 어떠한 것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던 기간이에요. 남편이 아빠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는데, 상하이에 있으면서 알게 됐어요. 중국에서는 남편이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니 애들하고도 좋아졌어요. 심지어 애들이 “우리는 아빠랑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논 게 별로 안 되는 데, 막내는 아빠가 날마다 놀아주니까 참 좋겠다.” 하더라고요. 유년기에 아빠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낀 거지요. (2020. 9. 26. 면담).

한국에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학부모들과 교류가 적었으나 상하이에서는 자녀 또래의 학부모들과 교류가 많았다. 이영희가 살았던 곳은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기에 주변 시선과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학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시기, 암투, 누군가를 따돌리고 깎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상해에서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왕따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 딸들도 왕따를 당했더라고요. 상해에 가서 영어나 다른 사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욕심이 많아서 겁도 없이 뛰어드는 성격이라 학교에서 나섰나 봐요. 그게 안 좋게 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예민해지고 학교생활도 안 되고, 저는 저대로 정신을 못 차리겠고. 아빠를 두고 중도 귀국을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래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저는 겁이 많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서

나서는 것을 안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제 틀을 깬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학 간 학교에서 학부모대표직을 맡았어요. 저희 아이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2020. 9. 26. 면담).

당시는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외교 상황이 좋지 않아 교민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남편의 회사가 철수 위기에 놓여 있던 시기였기에 비자 발급, 자녀들의 학교, 거주지, 거주 기간이 분명하지 않은 시기였기에 불안감은 더욱 컸다. 이때 자신과 아이들을 잡아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남편이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아빠에게 기회를.** 귀국 결정은 이영희 가족에게 도전이었다.

귀국을 결정할 때, 중국에서 더 있게 되면 직장에서 남편 자리가 흔들릴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입 특례보다 남편의 선택을 우선했지요. 큰애가 제일 울었어요. 특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작은애도 더 있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강하게 귀국을 이야기했죠. 저희 부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했어요. (2020. 9. 26. 면담).

귀국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가족 모두가 느끼는 것이었지만 남편의 상황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다.

### 최하린의 이야기

**경제적으로 등급화되는 경험.** 최하린은 초등학교 4학년과 5살인 두 자녀와 함께 2016년 2월 중국 상하이행 비행기를 타게 된다. 15년간의 교사 생활에서 오는 매너리즘에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중국 생활에서의 2년은 언어적인 문제는 있지만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인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끼리 부딪침이 적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걱정이나 경쟁이 없어서 좋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하이 교민사회는 한국사회의 작은 축소판으로 경제적인 편차가 컸다. 최하린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며 보고하고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녀가 어려워하는 또래관계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한국에 있으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상하이는 그게 좀 달랐어요. 스펙트럼이 정말 컸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등급이 나뉘는 것을 느꼈지요. 아이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니,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가 찾아줘야 했어요. 상하이가 크고 저희 집이 중심지에서 좀 벗어난 곳이라 모임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친구가 중요하니 힘들어도 언제나 참석했어요. (2020. 9. 28. 면담).

상하이에서는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친정 곁에서 지냈기에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자녀를 챙기는 일이 오롯이 부부 두 사람의 몫이 되었다. 남편은 중국의 낯선 환경 속

에서 가족을 지키고 챙겨야 한다는 책임을 크게 느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늘었고, 자녀들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코로나 엑소더스(exodus).** 귀국 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첫째 자녀의 학교적응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에 귀국하여 1년 정도 적응 시간을 가진 뒤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귀국 시기를 계획했지만,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내려오면 꼭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지침을 다 읽을 수가 없고, 정보도 적으니까 갑자기 공안(중국경찰)에게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도 있었어요. 분위기도 위협적이고요. 저희가 오기 전에 심해져서 아파트 단지를 다 봉쇄하고 문 하나만 열어 놓은 상태였어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어서 ‘상하이 한국상인회’에서 마스크를 배포하기도 했고요. 중국 항공기가 다 취소됐는데 저희가 예약한 한국 항공기는 운항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오고 3일 뒤에는 한국 항공사 비행기도 취소됐어요. 그때는 중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엑소더스’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이제 살았다는 느낌이었어요. (2020. 10. 28. 면담).

최하린은 코로나19로 유명 도시같이 변해 가는 상하이를 떠나 고국으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 박경희의 이야기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한 갈망.** 출국 전 박경희는 중학생인 첫째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중학교에 올라간 큰애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학원을 보내는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영포(영어 포기자)’가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영어를 벌써 포기하고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싫어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차라리 외국에 가서 언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남편이 상하이 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은 외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자기 목적이 있었어요. (2020. 10. 22. 면담).

사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이고 공부는 미래 진로와 연관되므로 부모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녀의 교육과 다양한 교육환경에 대한 갈망으로 출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특례 입학에 염두에 두고 중국에 간 것이 아니었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신경을 썼다.

5년을 살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했죠. 저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요. 밖에서 하는 모임이 적고 늦게까지 놀고먹는 문화도 아니니 남편은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상하이는 지역이 좁으니 다른 집 아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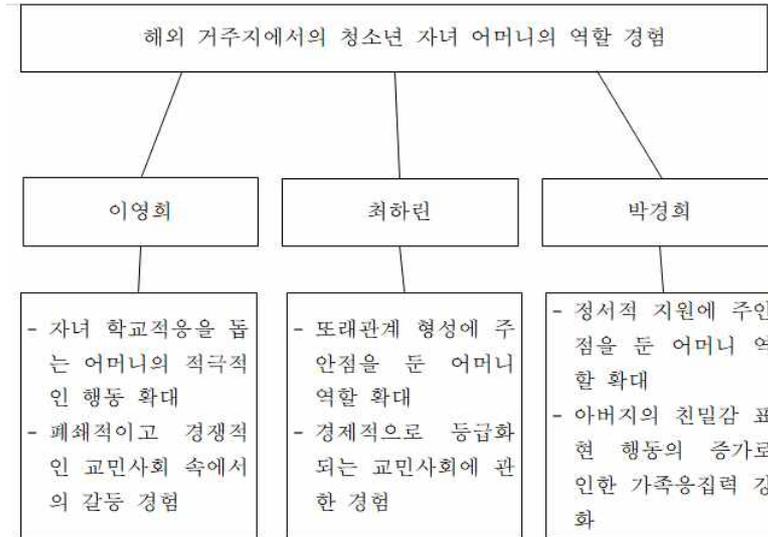


그림 2. 해외 거주지에서의 청소년 자녀 어머니의 역할 경험

보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낀 것 같아요. 방법을 모르다가 주변을 보며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2020. 10. 22. 면담).

박경희에게 상하이 생활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경험을 한 소중한 기회였다.

연구참여자 세 사람의 해외 거주지에서의 부모역할 경험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귀국 후 재적응과 청소년 자녀 어머니의 역할 경험

#### 이영희의 이야기

**말이 통하는 외국.** 이영희에게 귀국은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였기에 안도감과 편안함을 주었다. 그러나 4년만에 돌아온 모국은 '낯선' 외국 같았다.

한국 와서 처음으로 느낀 건 말이 통하

지만,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외국. 그래서 더 외롭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도덕성이 떨어진 느낌, 배려심이 없다는 느낌도 받았죠. 중국에서 살다 와서 모르는 것이 많은데, 모른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갑질'을 하며 사는 것 같았어요. 학교 엄마들한테 먼저 나서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니까. (2020. 9. 26. 면담).

중국에서 귀국했다고 하면 미개한 나라에서 온 것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싸구려 취급받는 느낌도 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는 바이러스 취급까지 당하는 것 같아 위축되기도 했다. 이영희의 자녀들도 자신의 해외 거주지인 중국을 밝히기 꺼려했다. 귀국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의 적

응이었다.

둘째는 한국에 막 와서 아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이 정말 많은 아이인데, 학교에서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튀고 싶지 않고, 어떤 아이가 나에게 상처 줄지 모르니까 한 학기는 지켜보겠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는 교우관계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왕따를 시킬 수도 없고 애가 친구가 없어도 이상한 아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친구들끼리 거리두기를 시키니까 혼자 밥을 먹어도 낯설지 않고, 친구를 빨리 사귀지 못하는 아이인데, 오히려 천천히 관찰하면서 자기랑 맞는 아이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2020. 10. 23. 면담).

귀국 후 재적응 시기를 보낸 자녀들은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행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자녀들의 적응에 완충지가 되기도 했다.

**불안은 부모의 몫.** 이영희는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 중국에서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자녀들이 나름대로 학업 성과를 이루고 인정도 받았기에 귀국 후에도 잘 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한국식 선행학습과 시험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자녀의 학업과 손실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자녀들도 학습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

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자녀들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안심이 되기도 하였으나 주변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는 불안을 증가시켰다. 자신보다 자녀들이 잘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 자녀의 학업 성취가 성에 차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열심히 잘한다.” 이 한마디가 안 되는 거예요. 칭찬하면 여기서 만족하고 끝날까 봐 불안해서 칭찬이 잘 안 돼요. 뭘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계속 채찍질하게 하더라고요. 막 귀국해서는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채찍질하시는 게 있어요. 아이 공부가 불안했던 게 시어머님의 영향도 있었죠. 기대가 크시고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큰애가 외국에서 학교에 다녀서 고등학교 입학 특례가 되는데, 주위에서 고등학교 입학 후에 노력해주고 과외 시킬 수 있는 돈이 있냐고 말하더라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면서 아이들에게 더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2020. 10. 23. 면담).

사춘기인 자녀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면 ‘성인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해도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불안감 때문에 혼내고 다그치고 화를 내게 됐다. 자녀의 전체를 고민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았다. 불안감은 부모의 몫인 것 같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다닌 국제 학교는 절대 평가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했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만족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학교의 상대평가 방식

은 끝이 없는 경쟁 상태로, 남들보다 잘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니 불안이 증폭되어 자녀들을 몰아붙이게 되었다. 또한 귀국 이후 청소년기 자녀들이 한국 대중문화와 소비적인 또래문화에 급속도로 노출되면서 자녀들과 갈등이 커졌다. 학습에 대한 어려움, 갈등과 달리 사춘기 자녀의 문화접촉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4년 동안 접하지 못했던 한국문화에 빠르게 빠져드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상황은 더욱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 또래문화를 나쁘게 인식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됐다. 그러나 자녀와의 갈등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하고 갈등하게 되니까 부모의 역할, 아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다른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판단하면서 살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님이 내가 알아서 하라 하는 식이어서 제가 모든 걸 결정해야 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내가 다 알아서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는 선택이나 정보를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어도 칭찬, 지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정서적 지지도 못 해주고 있네요. (2020. 10. 23. 면담).

친정어머니의 교육방식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중국에서 살아갈 힘

이 됐다. 친정 부모님의 교육관 안에서 자라난 자신이 잘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믿고 내버려 두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다. 자녀들이 남들보다 늦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불안감을 낮추고 있다.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마음을 비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자녀의 선택을 믿고 맡겼던 친정어머니처럼 이영희 자신도 자녀를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다.

**가족과 함께 버티기.** 이영희에게 귀국 후 재적응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생활’이었다.

버티기 같아요. 어떤 분이 ‘존버’라고 하더라고요. 존귀하게 버티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버티는 것은 생존이기 때문에 존귀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 버티기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두 버티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루살이처럼 내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저를 버티게 해주는 것도 크게 보면 가족이지만, 버틸 수 있게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은 아이들이고, 참게 만드는 것도 아이들이고, 부모님들과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아이들이고요. (2020. 10. 23. 면담).

귀국 후 재적응에 힘이 되어준 것은 가족이고 자녀들이다. 이영희에게 귀국 후 재적응 경험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부모님에게 받았던 교육과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자기 인식을 확대하고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가족임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 최하린의 이야기

**코로나 상황과 4차 혁명에의 적응.** 귀국 후 최하린은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었다. 귀국 후 몇 달 동안은 한국 물정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인터넷으로 장보기를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 많았다. 중국에서는 모바일 하나로 결제를 했지만, 한국은 정보도 많고 체계도 다양해서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용하는 언어가 바뀐 것도 아닌데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도 있었다. 바뀐 정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여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학교에 복직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추어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았다.

귀국 초기에는 살아가기 급급한 상황에 놓여 있던 거 같아요. 첫째는 원래 다니던 학교에 갔는데,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친구를 엮어주기도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스스로 친구를 찾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만날 수가 없고, 수업은 온라인 단방향 방송으로 하다 보니 친구랑 교류가 없는 거지요. 지금도 주 1회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친구를 못 만들고 있지요. (2020. 10. 23. 면담).

교사인 최하린 부부는 자녀가 원할 때 공부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했기에 지금까지 사교육을 시킨 적은 없었으나, 중국 생활을 마친 뒤 변화가 생겼다. 자녀가 영어와 중국어에 관심을 보이고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 영어와 중국어는 인터넷 화상 과외 수업을 시키고 있다.

중국에서 지낼 때는 안전상에 문제로 아이와 함께 움직이니까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어느 친구랑 노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아이가 움직이는 반경이 넓어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하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몰래 핸드폰을 보고 못 본 척 했어요. 반에 있는 남자아이랑 인사를 하게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말을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의 최대 관심사가 친구예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전에는 제가 친구 사귀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했다면 아이가 바뀌어서 스스로 친구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2020. 10. 23. 면담).

또래 관계에 서툴렀던 자녀가 친구를 그리워하고 천천히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사회성과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온 최하린의 입장에서 자녀 스스로 친구에게 다가갈 기회가 없어진 현재 상황은 당황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에서의 적응은 '혹 들어온 4차 산업 혁명' 같아요. 생활이나 아이 교육, 직장에서도 변화가 너무 많아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고 예전에 생각해 본적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이 교육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정보를 다루는 기계에 대해 교육도 해야 해요. 저희가 맞벌이라 바로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더 필요해요.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책을 빌려다 주고, 보드게임도 같이 해요. 예전에는 책을 사줘서 읽게 했는데 부모가 선택해서 책을 사서 원하는 게 부모 욕심인 것 같아요. 책은 돈을 모아 아이가 이웃을 돕는다거나 하는 다른 곳에 쓰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2020. 10. 30. 면담).

최하린은 자녀의 적응을 위해 자녀가 속상해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다독이는 말을 해 주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남편이 상하이에서 지내고 온 뒤에 가족 중심에서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본인은 항상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취미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취미 활동하고 아이들과 놀아줬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나서 취미활동을 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시댁하고 관계에서도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2020. 10. 30. 면담).

귀국 후 가족의 재적응에서 남편의 역할은 중요했다. 귀국 후에도 남편이 가족 중심에서 있고, 아버지의 역할을 할수록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다고 한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이나 신뢰, 믿음이 커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귀국 전과 달리 시댁과의 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귀국 후 재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행복감도 느끼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 수용하기.** 귀국 초기에는 중국에서 귀국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경계심을 보이거나 중국 사람이나 중국을 모르고 무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 모두에게 중국에서의 경험과 귀국 후의 경험은 견문이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견문이 넓어지고 타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이 향상된 것은 가족뿐 아니라 최하린의 개인적 경험과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여행하고 달리 중국에서 살아보니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다양한 문화에 대해 융통성이 생겼다고 할까. 우리나라는 강대국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작은 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경쟁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남들과 비교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니 불안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 살고 있고, 살아야 하니 경쟁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제가 교육 현장에

있으니 제가 있는 곳에서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쓰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싶고요. (2020. 10. 30. 면담).

중국에서의 거주 경험은 최하린에게 타문화 수용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켰다. 타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 향상은 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자녀의 교육과 직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확장되었다. 최하린은 중국에서 배워온 태극권을 학교에서 동아리로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업과 담임으로 만나는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 수용에 대한 관점에 대해 질문을 던져 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한다.

### 박경희의 이야기

**다시 생각하는 어머니 역할.** 귀국 후 재적응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큰딸과의 관계였다. 박경희는 한국에 돌아와서 큰딸을 돌보며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큰딸이 자기감정이나 예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큰애가 대학에 입학해서 1년 먼저 한국에 왔는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한국 애들처럼 공부했던 것도 아니니 공부도 어렵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선배들이랑 위계문화 같은 것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귀국해서 보니까 1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부작용이 컸어요. 아이가 스트레스가 커서 '화가 많더

라고요. 말 붙이기도 어려웠어요. 그때가 진짜 사춘기 같았어요. 날카롭고 예민한 상태였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포용을 많이 해줬어요. '엄마는 너를 챙기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2020. 10. 28. 면담).

사춘기 시기에 욕심 없이 바라봤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후회가 생겼다. 자녀들과 대화가 많아지면서 자신이 살았던 규범이나 기준 등으로 자녀들을 판단하니까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걱정만 하고 힘들어했지, 자녀의 처지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서 원하는 것을 해주지는 못했다고 한다. 자녀의 행동이 모두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도록 믿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 자녀의 성공기준이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욕심을 내려놓았다.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둘째 아이의 적응.** 귀국 당시 박경희의 둘째 자녀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학업보다 학교생활이 더 큰 걱정과 고민이었다.

귀국할 때 둘째가 중 2이다 보니 학교 적응을 잘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가장 고민이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했어요. 교우관계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소외되거나 왕따를 당할까 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봐와서. 옛날이랑 달라서 요즘은 아이들이 나쁜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조심스러웠지요.

(2020. 10. 22. 면담).

한국에 들어와서 살 지역을 선택할 때도 둘째 자녀의 학교와 적응이 우선이었다. 학업적인 분위기보다 경쟁이 심하지 않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동네를 찾았다.

친구를 사귀기는 했는데 무리가 지어져 있으니까 낄 수가 없는지 1학년 때 오면 더 좋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쟁이 심하니까 재미없다고 해요. 상하이에서 다녔던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은 하죠. 영어와 수학을 어느 정도 하니까 욕심을 내보고 싶은데 아이가 원하지 않아요. 외교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면 동네에 있는 평범한 학교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외교를 보내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내고 싶은데,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강요는 안 하고 있어요. (2020. 10. 28. 면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니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학교에서 충족할 수가 없어 안타깝다고 한다. 이런 부분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한국의 부모들이 존경스러우면서 자신은 그렇게 못하기에 지치고, 자녀가 따라주어야 가능한 일하기에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큰애는 사교육을 안 시키면서 한국 교육에 어떻게 적응을 시켜보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둘째는 사교육을 어느 정도는 시켜야 한다고 마음을 정하니 마음이 편해

졌어요. 이제는 진이 빠져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살아줄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듣고, 부모 닮아서 그런 걸 어찌겠어요. 식구 중에 대장이 둘째예요.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오고 집안 분위기가 안정적이니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안 하고. (2020. 11. 3. 면담).

남편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도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남편이 주변을 보며 알게 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니 자녀들의 귀국 후 재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황금기.** 고국에 돌아온 느낌은 편안함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정착하는 것은 재미와 즐거움보다 스트레스였다. 귀국 후 1년 정도 무력감이 계속된 것 같은데 남편이 가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자녀들과 관계도 좋아지면서 여유가 생기고 활력이 생겼다.

자식을 낳으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예전에는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했죠.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혼자 동동거렸던 거지요. 이것저것 해봐도 시행착오가 있었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 둘 키우면서 치매 초기인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보다 아이들 교육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중국 갔다 와서 애들을 이해해주려고 하고 애들 마음을 받아주니까 그게 해결이 된 거지요. 그래서 편안하고 좋아요. 황금기에요. (2020. 11. 3.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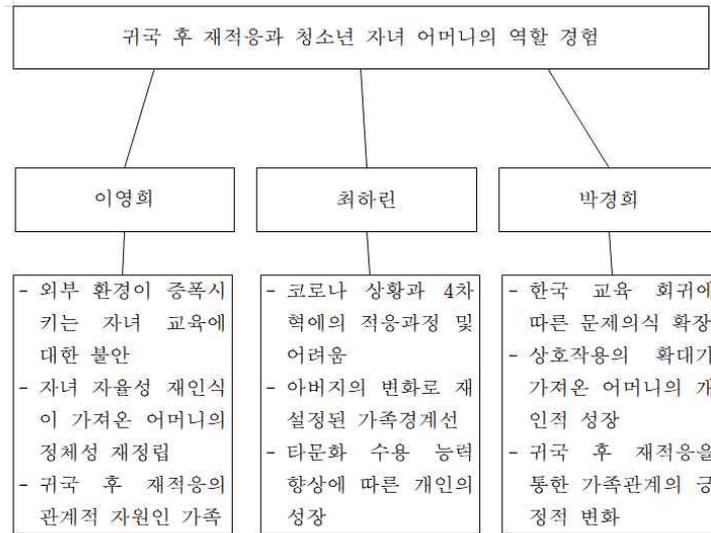


그림 3. 귀국 후 재적응과 청소년 자녀 어머니의 역할 경험

박경희는 귀국 이후에 가족관계가 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한다. 관계가 좋아진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한다.

연구참여자 세 사람의 해외 거주지에서의 부모역할 경험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정을 통해 귀국 후 재적응 과정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삶의 이야기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앞에서 제시한 두 개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해외에서 교민사회의 다양한 면을 접하게 된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일차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교와 자녀의 또래 관계를 위해 교민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교민사회 속에서 경험한 가장 큰 공통점은 경쟁과 견제, 폐쇄성이었다. 또한 해외 거주지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이영희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옮기고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지만, 학부모대표직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최하린은 자녀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가 또래와 관계 맺을

## 논 의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해외 거주 가족의 귀국 후 재적응을 살펴보고자 청소년 자녀를 둔 귀국 가족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 거주 기간과 귀국 후 재적응 시기에 어떠한 어머니 역할을 경험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어머니 역할 경험은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와 자녀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다시 말하고(retelling), 다시 사는(reliving) 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경희는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정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며 어머니의 역할을 했다. 한편, 해외 거주지에서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한 자원 중 하나는 남편의 변화된 생각과 행동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참여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이 커지고 결속력도 강해졌다. 부부가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의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도 확대되고 자녀들도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커졌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한국에 사는 친지들보다 가족 구성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 구성원 간 결속감이 커지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외국 거주지 생활에서의 경험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들과 일치된 양상을 보이는데, 한 선행연구(김정민, 김혜민, 김용주, 2010)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 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고한 바 있다. 즉 자녀의 성장을 위한 아버지의 지도 및 교육 참여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특정 상황에서 목표를 성취하는데 유의한 방향으로 감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응적인 스트레스 대처 행동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성연과 임희수(2000)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아내가 자녀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독립심을 격려하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결부시켜 살펴볼 때에도 중국에서의 남편의 역할 변화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

계를 형성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아내의 양육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가족응집력과 가족 적응력이 높을수록 부모 효능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최혜영, 2016)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귀국 가정의 어머니들의 귀국 후 재적응 경험을 W모형에 비추어 볼 때, 각자 다른 적응 양상을 보인다. 귀국 당시 연구참여자들은 따뜻함과 편안함, 기쁨을 느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탈출하듯 귀국한 최하린은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는 역문화충격의 W모형의 첫 과정인 행복 단계(honeymoon)이다. 그러나 귀국 후 기쁨과 기대는 불편감, 낯섦, 혼란으로 대체되는 문화충격(culture shock)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영희는 이 경험을 ‘말이 통하는 외국’이라고 이야기한다. 체류 기간이 5년인 박경희와 4년인 이영희는 달라진 한국 사회의 문화에도 낯섦을 느꼈다. 이영희는 ‘배려심이 없고 도덕성이 떨어진 듯하며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경제적 수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느낌을 받았다. 박경희는 ‘인심이 예전 같지 않고 돈이 위주라는 생각과 기본 예의나 배려가 너무 없는 각박해진’ 한국 모습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체류 기간이 2년인 최하린은 일상적 언어나 정책적 언어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고 달라진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문화충격 단계가 지나면, 자신의 기대와 인식을 조절하고 적응 행동을 통해 조정의 시기(initial adjustment)를 거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를 마주하게 되면서 소외의 단계(mental isolation)에 이른다. 이영희가

느꼈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환경적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귀국 후 자녀의 학업 손실 회복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지만, 자녀의 교육 경험을 통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교육과 부모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유발하며(이인영, 정영숙, 2020), 귀국 학생들은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여 귀국 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강조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어렵고 수준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선행연구(윤종일, 2016)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귀국 가정의 어머니들은 귀국 후 학습의 어려움을 과외나 학원 같은 사교육의 도움으로 해결하며(정재옥, 주은선, 2003), 한국 문화가 경쟁적인 문화임을 고려하여 자녀가 경쟁 사회에 잘 적응하고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처신해 나가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부모로서 중요한 책임으로 여긴다는 선행연구(김민정, 2014)가 있는데, 본 연구 결과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박경희와 이영희는 청소년기 자녀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 재설정의 필요성과 혼란을 경험한다. 그러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정체감을 새롭게 수립하고 자기 인식의 확장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존적 관계를 벗어나 심리적 독립을 이루려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한다는 선행연구들(Blos, 1979; Hartup, 1989)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자녀의 발달 지원을 돕는 교육 관여는 부모와의 유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되고(Scher et

al., 2006),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자녀와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성인일수록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높고(박영신, 김의철, 2008), 특히 어머니에게 자녀와 가족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김의철, 박영신, 2006)는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귀국 후 재적응은 귀국 가족의 해외 거주 국인 중국과 연관된 특수한 경험도 발견할 수 있다. 이영희는 귀국 초기 '중국에서 귀국했다'고 하면 미개한 나라에서 온 것처럼 대하는 경우를 경험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위축되기도 했다. 이영희의 자녀들도 자신의 해외 거주지를 밝히기 꺼렸다. 최하린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경험은 타 문화수용력을 높이고 모국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하린은 중국에서의 생활과 적응 경험에서 획득한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 수용에 대한 관점을 학교 교육현장에서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귀국 후 역문화충격을 경험하면서 W모형에서 말하는 마지막 단계인 통합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되는 귀국 후 재적응 과정에서의 심리적 자원은 가족관계였다. 해외 거주지에서 강화된 가족응집력은 귀국 후 재적응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 되었는데, 이는 외국 체류 시 만족도가 높으면 귀국 뒤에도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강란혜, 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귀국 후에도 계속된 아버지들의 역할 강화, 가족 경계선의 재설정, 가족 친밀감은 가족응집력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으며,

귀국 후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및 귀국 가족 어머니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특히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어머니의 발달단계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중년기 여성의 정서적 위기감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요인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이고(박혜순, 1991; 이광재, 2017),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는 전통적 성역할 분담을 완화시켜 부부간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며(조성은, 정지영, 윤서영, 2006),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중년기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장수지, 2010).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귀국 가족의 어머니들은 귀국 후 재적응 경험을 통해 자신과 청소년 자녀의 교육,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존과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 해외 거주 시 이질적인 문화와의 접촉 경험은 개인의 문화정체성을 알 수 있게 하며, 귀국 후에 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더 쉽다(Sussman, 2000). 또한 중년기는 잠재되었던 자아의 출현과 발달, 내적 통합, 변동에 대한 적응력, 모호성에 대한 관용 등을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이다(김명자, 1991). 본 연구에 참여한 귀국 가족의 어머니들은 귀국 후 재적응 시 청소년 자녀와 관계 경험과 청소년 자녀의 교육 경험 및 새롭게 획득한 문화정체성과 타문화 수용력을 바탕으로 개인적 통찰과 성장을 이루며, 해외 거주와 귀국 후 재적응의 경험은 가족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은 특히 여성으로서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양육적 모성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돌봄의 과정에서 다문화 인식이나 수용성의 확대, 성찰의 경험 증대로 인해 통합적으로 인격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 제언 및 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도시 중 대도시인 상하이에서 거주한 귀국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가 3명이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 수는 내러티브 탐구의 성격에 근거하여 채택되었지만, 귀국 가족의 경험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의 선정이나 연구대상의 선정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귀국 후 가족의 재적응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귀국 가족의 재적응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아버지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서 변화와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가족을 연구함으로써 가족의 적응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이해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의 자녀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청소년기의 성별에 따른 변화를 두루 다룰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청소년의 어머니들이 귀국 후 재적응에서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교육 경험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귀국 가족의 어머니들은 가족관계 속에서 자녀의 교육 및 부모-자녀와의 관계적 부분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귀국 후 재적응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국

후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및 부부관계, 원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귀국 가족의 재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하였다. 해외에서 귀국 한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수의 연구대상을 포함하는 양적 연구와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의 시도를 제언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국 후 재적응에 관한 가족 단위의 통합적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의 재적응 경험을 다루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참여자는 귀국 가족의 어머니였으나, 어머니들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전체 가족의 경험을 다루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해외 거주자가 자국에 귀국한 뒤에 경험하게 되는 문화재적응의 어려움에 관해 설명을 제공하는 역문화충격의 W 모형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해외 거주자들이 귀국 후 모국의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타 문화에 적응하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적응 과정에서 지지 체계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귀국 가족은 해외 거주지에서 적응과정을 통해 가족응집력이 강화되는 경험을 하며, 귀국 후 재적응 과정에서도 가족구성원이 관계적 자원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는 귀국 가족의 재적응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

경험을 가진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귀국 가족의 재적응과 더불어 그러한 가족 내에서 어머니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족 상담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상담 서비스를 개발하는 자료를 축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란혜 (2001). 해외 귀국 아동의 이문화 체험과 귀국 후 사회·심리적 적응.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1), 175-192.
- 장미진 (2014). 유아기 해외 거주 경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상담 사례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예지, 김미현 (2017). 귀국 대학생의 구직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진로교육연구*, 30(3), 71-91.
- 고명금 (2018). 한국 대학생 제3문화 아이들 (Third Culture Kids)의 모국 문화적응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유미 (2006). 귀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통계연보 (2017).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치중등교육통계편(통계자료 SM 2017-6).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권선미 (1997). 해외 귀국 아동의 초등학교적응

- 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효숙 (2002). 초등학교 '귀국반' 아동의 적응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 (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김미경 (2012). 귀국 준비성 및 기대성과 귀국 후 재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 (2015). 유아기 해외 거주 경험자의 귀국 후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4). 부모 역할 책임의식이 부모양육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미국거주 다국적 부모, 한국계-미국인 부모와 한국 거주 한국 부모 비교.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19(4), 651-667.
- 김선주 (2013). 국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귀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설리 (2015). 해외 거주 경험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인 (2018). 중도 귀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1-28.
- 김정민, 김혜민, 김용주 (2010).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77-87.
-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 김필성 (2015). 내러티브 탐구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고찰.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2), 103-118.
- 김향미, 김혜정, 이양연, 이혜주 (2018). 해외 귀국대학생의 진로준비경험에 대한 혼합연구. *진로교육연구*, 31(2), 69-90.
- 김혜나, 한유진, 강진옥 (2018). 학부모 경제적 수준에 따른 조기유학 실태와 학생적응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9(4), 949-964.
- 김혜정, 남초원, 이수정 (2015). 귀국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433-499.
- 남지은 (2013).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homelessness of third culture kids (TCKs)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숙, 이현숙 (2010). 조기 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 II: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경숙, 임재훈 (2012). "난 내 나라가 낯설어요!" 귀국학생의 국내 학교적응 경험. *교육심리연구*, 26(3), 621-649.
- 문경숙, 임재훈, 윤철경, 이아영 (2009). 조기유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민정 (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7(4), 27-47.
- 박성미, 전미경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 친구애착에 따른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5, 358.
- 박성연, 임희수 (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애스더 (2018). 귀국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3), 5-40.
-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자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 효능감이 성인의 가정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혜순 (1991).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연 (2014). 중년여성가장의 정체성 변화: 사 진작업을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2020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361&bbsBean.bbsSeq=304>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안수진 (2012). 청소년기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귀국 성인의 자아정체감 및 직장적응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상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25-146.
- 외교부 (2019). 2019 재외동포 현황.  
[http://www.law.go.kr/법령/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20170120,13797,20160119\)/제2조에서](http://www.law.go.kr/법령/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20170120,13797,20160119)/제2조에서) 2020년 9월 27일 인출.
- 위키백과 (2019). 지역별 재외한인 현황 중국. [https://ko.wikipedia.org/wiki/지역별\\_현황\\_중국거주\\_상하이\\_대한민국\\_총영사관](https://ko.wikipedia.org/wiki/지역별_현황_중국거주_상하이_대한민국_총영사관).
- 윤종일 (2016). 조기 유학을 경험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재 (2017). 중년기 여성의 심리사회 성숙이 정서적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한영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노미 (2017). 역문화충격의 구조적 요인과 적응과정에서의 비교문화역량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5(2), 45-77.
- 이인영, 정영숙 (2020). 중년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지감과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에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5(2), 113-128.
- 이수경 (2014). 해외거주 CCKs(Cross-Culture Kids: CCKs)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민 (2012). 귀국 성인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이동훈 (2009). 상담일반: 귀국 청소년의 국내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1783-1804.
- 이정표 (2012). 방법론으로서 내러티브 탐구

- (narrative inquiry) 고찰. 초등교육학연구, 19(2), 127-147.
- 이현주 (2009). 청소년의 해외 유학 경험과 자아 정체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다솜 (2018). 미국대학을 졸업한 조기유학 종결자들의 가족관계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양희 (2014). 외국인 학교 제3문화 청소년의 문화정체성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지 (2010).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23.
- 장예은, 김향미, 김혜정 (2019). 귀국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 인식 명확성,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1197-1214.
- 정상미 (2013).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중년기 부부의 직업,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욱 (2002). 해외귀국 중학생의 특성과 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욱, 주은선 (2003). 해외 귀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29-351.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조성은, 정지영, 윤소영(2006). 남성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4(1), 129-140.
- 조혜자, 방희정 (2006).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1-28.
- 좌동훈 (2013).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도연 (2011). 조기유학 귀국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연실, 옥선화 (1997). 가족 스트레스 모델의 경험적 검증: 청소년 자녀가 있는 중년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5, 55-78.
- 최정아 (2014). 청소년기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와 가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294-305.
- 최혜영 (2016).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이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4), 441-450.
-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Adler, N. J. (1981). Re-entry: Manag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Group and Organization Studies*, 8(3), 341-356.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hamove, A. S., & Soeterik, S. M. (2006), Grief in returning sojourners. *Journal of Social Sciences*, 13(3), 215-220.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내러

- 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저 2000년 발행)
- Clandinin, D. J. (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Narrative Inquiry: A Methodology for Studying Lived Experience)]. (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공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저 2006년 발행)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정선숙,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3년 발행)
- Gaw, K. F. (2000). Reverse culture shock in students returning from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1), 83-104.
- Hartup, W. W. (1989). Children and their friends, In H. McGurk(Ed.), *Issues in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130-170). London: Methuen.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rtin, J. N. (1984). The intercultural reentry: Conceptualization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2), 115-134.
- Polkinghorne, 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cher, A., Harel, J., Scharf, M., and Klein, L. (2006). The Dual Viewpoints of Mother and Child on Their Relationship: A Longitudinal Study of Interaction and Representation. In Maysel, O.(Ed.), *Parenting representations: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149-17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le, C. (2002). Quality Issues in Qualitative Inquiry. *Qualitative Social Work* 1: 97-110.
- Spradley, J. (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 (Participant Observation). (박종흡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80년 발행)
- Storti, C. (2003). *The art of coming home*.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Sussman, N. M. (2000). The dynamic nature of cultural identity throughout cultural transitions: Why home is not so swee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4), 355-373.
- Tam, V. C., and Chan, R. M. (2009). Parental involvement in primary children's homework in HongKong. *School Community Journal*, 19(2), 81-100.
- Uehara, A. (1983). The nature of American student re-entry adjustment and perceptions of the sojourner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415-438.

1차원고접수 : 2021. 08. 09.  
 심사통과접수 : 2021. 09. 17.  
 최종원고접수 : 2021. 09. 30.

## A Narrative Inquiry about Re-adaptation of Returned Korean Families from China: Focusing on the Role of Mothers with Adolescents

Miyoung Lee

Youn Shil Choi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daptation experiences of families living in China after returning home, focusing on the parental roles of mothers of adolescent childre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three mothers from returning families who had adolescent children who lived in Shanghai, China for more than two years and had lived in Korea for less than three years. The research method used narrative inquiry,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understand and explore the meaning of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s of residing in China and re-adaptation after returning hom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strengthening of family cohesion in overseas residence. After returning home, through the experience of educating their children, they felt the confusion and problematic awareness of Korean education, and thought about better education and the role of parents. They experienced personal growth in the process, and the strengthened family cohesion while living abroad became a positive resource for readjustment after returning home. This study will be able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returning families and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women's counseling and family counseling services and educational programs.

*Key words* : returned Korean family from China, re-adaptation after returning home, adolescent children, mother roles, narrative inquiry